

---

# 대테러 대비 전략을 위한 테러와 재난정의 이해

## The enhanced definition of terrorism and disaster for better Counter-terrorism strategies in the future

오 한 길\*, •김 대 하\*\*  
Oh, Hangil, Kim, Daeha

---

### 요 약

현대 사회에서 테러는 국제적으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테러의 인식에 따른 시각은 다소 편협하여 성별, 나이, 직위, 장소등 많은 부분에서 갈등을 갖으며, 또한 한반도는 남북한의 갈등으로 인한 특수성은 게릴라 전을 테러라고 인식하는 시각이 있다. 국내 특수성으로 인해 테러를 전쟁의 영역으로 보고 테러대응 전략은 국가 안보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 역사와 정치적으로 또한 테러는 이념대립으로 인한 전쟁으로 치우쳐 전쟁의 전략에 한 부분으로 인식 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이다.(Rumyana G., 2014) 이는 전쟁의 시각에서 테러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한편, 테러의 개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의 안보의 개념뿐 아니라 재난의 개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민중의 분노로 이해하여야 한다”고 스위스 진보적 사회학자 장 징글러(Jean Ziegler)는 말하며 무고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비합법적 무력 사용으로 보았다. 즉, 비합법적 무력사용으로 무고한 다중(Innocent people)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젠킨스와 라퀴르의 정의를 살펴보면 “테러리즘이란 폭력 혹은 폭력의 위협이다”라고 정하였다.(Jenkins 2004) 폭력이란 형법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협박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와 함께 다른 사람을 감금하는 행위,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 기물의 파손 등에 대해서도 폭력이라 표현한다. 철학, 정치학 등의 학문에서는 다른 사람 또는 국가나 세력을 제압하는 힘을 일반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힘자랑이나 힘겨루기가 이에 속한다. 무력의 사용으로 사회에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며 사회적 파괴를 일으키는 것을 보편적 테러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테러는 국가 통치 질서와 사회질서 안정에 큰 위협과 혼란을 초래하는 파괴행위의 무력행사로 국가의 재난 상황을 유발하는 인류가 만든 재난으로 볼 수 있다.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로 사회현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적 파괴행위에 대한 피해는 인류의 시점에서 재난의 현상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첨단기술을 이용한 폭력행위와 파괴의 두려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두려움의 전파 속도도 빨라 질 것이다. 따라서 테러행위의 극복을 위해서는 테러를 인적재난

---

\* 정회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구사 Hangiloh@korea.kr

\*\* 뉴욕시립대 형사사법대학 공학석사 Protection Management(Security Concentrated)  
daeha.kim1@jjay.cuny.edu

(Man-made Disaster)로 보고 재난의 범주로 포함하여 미래의 테러를 위한 대비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학계의 학자들과 기관 및 민간 의 전문기관들에 따른 테러의 정의를 분석하고 재난정의를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대테러 대비 전략의 방향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테러정의를 도출하였습니다.

## 1. 서론

국제 사회는 이념의 갈등과 타 종교간의 불화로 인하여 서로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 폭력을 행사하면서 양집단 간 파괴행위를 하고 있다. 서로간의 파괴행위는 역사적으로 오랜기간 지속되었으며 전쟁을 통한 폭력적인 행위는 문명의 발달에 따라 전략과 전술이 다양하게 변화하며 발전해 왔다.

전쟁은 파괴행위에 대한 전략과 전술의 대응과 대비를 목적으로 정의되어 의미가 고착이 되었다고 한다면, 안보개념의 테러에 의미는 파괴행위중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파괴효과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시대의 테러에 대한 해석은 파괴행위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하여 발생의 원인에 대한 대비를 할수 있도록 테러를 구분하는 것이다. 대테러 대비와 대응전략을 위한 테러정의를 지역별 나라별 종교별 이념별 세대간등 다양한 부분에서 이해관계의 차이를 보이며 양자 보호를 위한 수단이 아닌 구별을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 되었다.

테러행위와 의도에서 무엇을 테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범은 행위로 죄의 양형을 판단하기에 행위를 척도로 테러를 정의 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만약 테러의도만이 테러라 판단 한다면 직접적으로는 생각과 표현에 자유의 억압이 되며 간접적으로는 평등에 제한이 될 것이고, 행위로 본다면 끔찍한 결과로 인해 재산과 인명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고 영향력 막대한 것이 자명하다.

다음으로는 의도에 대한 행위이다. 나라별 종교별 이념별 세대별의 차이로 인한 양극화는 악화시킬 것이다. 우리나라의 일베현상이 그렇고 이슬람과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러하고 남북한이그렇듯 동일한 극에 따른 힘의 논리에 따라 한편은 자유수호자가 될 것이고 다른 편에서는 테러리스트가 되어 서로간에 파괴행위가 끊이없이 환류되어 질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관점을 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테러를 파괴행위의 폭력행사에 따른 재난은 사회적재난의 범주 포함되어야 한다. 재난 범주의 테러로 인한 피해 극복하여 본래의 기능으로 원활하게 돌아 갈수 있도록 테러재난 회복력에 중점을 둔 재난정의를 적립이 되어야 한다.

## 3. 결론

기관의 연구 자료 국제법 국내법 민간 및 학계의 학술 자료를 종합해서 결론을 도출한 결과 국내 테러와 테러리즘의 정의는 남북한의 갈등, 국제정세 등 테러정의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것을 알

---

수 있다. 다양한 방면에서의 내부적/외부적 테러리즘 요소들은 일반대중에 대한 무분별 피해뿐 만 아니라 사회기반 시설(Infrastructure)과 기업들의 업무연속성까지도 붕괴를 가져온다. 이 개념은 지금까지 보았던 좁은 의미로만 편중된 테러리즘의 의미를 확장시켜주어 테러리즘이 국가 재난에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테러 대비전략은 북한과의 안보뿐 아니라 테러재난의 범주 까지도 포함하여야 한다. 나라, 종교, 인종, 성별, 직위에 편파적인 통치 수단으로 거버넌스의 역할에서 벗어나 모든 인류의 자유와 평등을 보호하는 테러의 개념은 지금까지의 테러정의의 한계점을 보완할수 있다. 이 새로운 테러척도에 따라 대테러 대비전략과 함께 인적재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러한 테러정의에 대한 새로운 고찰은 테러 대비 대응 수습 복구 완화의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관리 하는데 많은 이점을 줄 것이다.

확장된 의미로 테러정의를 받아들임으로서 테러의 대비를 재난위기관리단계 (대비 대응 수습 복구 완화)에서 각 단계별로 대 테러 전략을 도모하여 테러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테러의 재난으로서의 정의는 현 시대에 맞는 위기관리법에 필수적 요소가 되며,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기본개념이 된다. 이러한 테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대 테러의 다각화와 구체화된 재난대비의 방법론을 개발해 내어, 다양한 상황에 맞는 장.단기적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